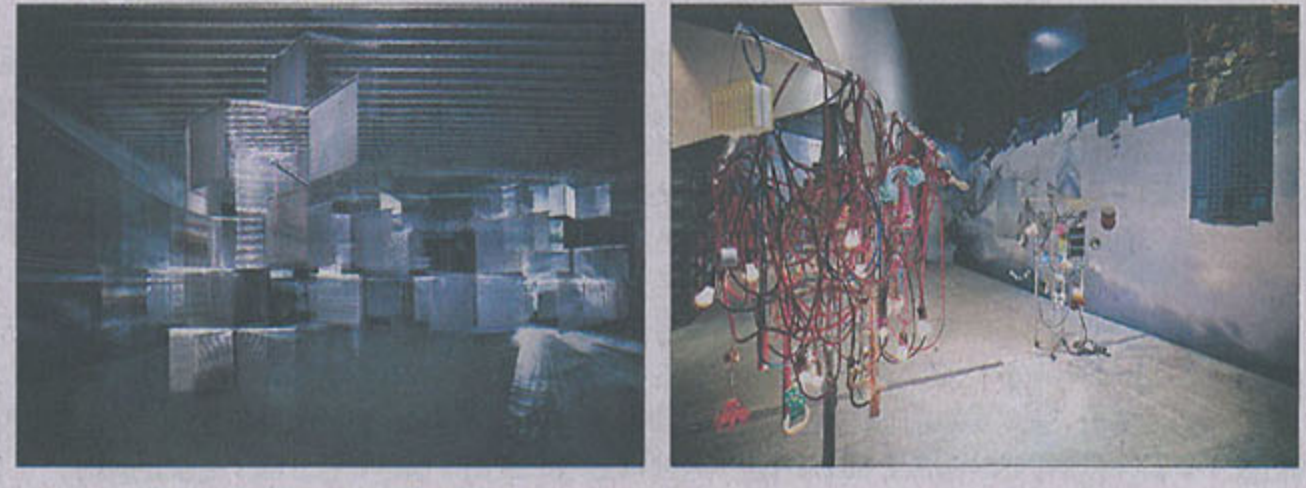


개인과 공동체를 둘러싼 역사와 문화, 정치의 맥락을 서사적으로 풀어내는 설치작업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설치미술가 양혜규는 오는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 기획전실에서 열리는 개인전에서 '창고 피스' 등의 대표작들과 작품으로 된 신작을 선보인다.
리움미술관 제공



설치작가 양혜규의 블라인드 설치작품 '성채' (왼쪽)와 '서울근성' (오른쪽).
리움미술관 제공

5년 만에 국내 팬과 만나는 세계적 설치미술가 양혜규

象象, 그 이상

(코끼리 상 : 고귀한 인격)

2006년 8월 인천의 주택가 후미진 골목에 있는 폐가에서 '사동 30번지'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렸다. 1970년대의 전형적인 주택이자 자신의 외할머니가 살던 인천 중구 사동 30번지의 남루하고 거친 모습을 거의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전구, 조명, 빨래 건조대 같은 사물들과 색종이 조형물, 방울 등을 드문드문 설치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은 부서지고 벗겨진 벽들, 먼지 쌓인 낡은 공간에 깃든 남루한 기억들을 슬그머니 이끌어내며 관람객들의 감성을 건드렸다.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유럽 무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양혜규라는 젊은 작가의 국내 첫 개인전은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세계 무대에서 그가 펼친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유럽과 미국의 유명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및 본 전시, 2012년 독일 카셀도쿠멘타 등 굵직한 행사에 초대돼 호평받으며 명성을 쌓았다.

이제는 '세계적인 설치미술가'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게 된 작가 양혜규(44)의 대규모 개인전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린다. 오는 12일부터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전시회에서 양혜규는 2001년 이후 발표한 대표작부터 새로운 작업의 방향을 볼 수 있는 신작까지 3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2010년 아트선재센터 전시 이후 5년 만이다.

전시에 대한 소감을 묻자 작가는 자분자분한 어투로 "전형적인 회고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지금까지의 작업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작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와 양혜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술관 전시나 비엔날레 같은 기관전이 작가에게는 '필요악' 같은 존재라고 했다. 이런 전시들은 탄탄한 작가가 되기 위한 등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시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는 이번 전시에서 실험적인 작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신작 '중간 유형' (2015)을 조심스레 내놓는다. 토속적이며 오랜 시간 전해 내려온 짚풀을 엮어 고대 마야의 피라미드 '엘 카스티요', 인도네시아의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러시아의 이슬람 사원 '라라 톨판'을 만들었고 여기에 인체를 연상시키는 개별 조각 6점을 더한 작품이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비켜 간 측면이 있는 건축물을 짚풀로 만들어 더욱 생경하다. 짚풀이 갖는 인류학적 보편성과 민족적 개별성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담고 있다.

기획전시실에는 신작과 구작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창고 피스' (2004)는 보관할 곳이 없던 작품들을 전시장이라든 보관하려는 작가의 공여지책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23점에 달하는 작가의 초기 작품들이 미술품 운송업체가 포장한 상태 그대로 네 개의 운반용 나무 팻말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창작적 재구성, 전시관행, 미술품 보관과 판매 등 예술작품의 다층적 생태계를 함축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작가로서 중대 기로에 섰던 이방인 양혜규를 단번에 관심 작가로 끌어올린 중요한 작품이다. 작품에 대한 사연, 내용물에 대해 얘기하는 '창고 피스를 위한 연설'과 함께 여러 도시에서 전시되다 2007년 독일 베를린의 하우브르크 전시장에서 열린 '창고 피스 풀기'를 통해 포장 속 작품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전시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작품 '창고 피스'는 초라한 아우라가 많은 것을 얘기하지요. 작업의 물리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공개를 회피하고 펼쳐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많

자 # 240'은 전시장 10m 높이 벽에 맞춰 제작된 신작이다. 광원을 매달아 만든 작품 '서울근성' (2010)은 1994년 이후 해외에서 머물던 작가가 2010년 서울에 3개월가량 체류하는 동안 제작한 작업이다. 다양한 일상적 사물들을 옷걸이용 행거에 전시, 전구 등과 함께 매달고 있으면서 인물을 형상화한다. 미술관의 블랙박스에 선보인 '성채' (2011)는 양혜규의 전형적인 블라인드 설치작품으로 블라인드와 빛의 조합, 향기와 그림자를 아우른다. 186개의 블라인드로 이뤄진 작품은 정방형에 가까운 성곽과 수직으로 뻗은 탑으로 구성된다. 기획전시장 입구 경사로 위에 설치된 작품 '솔르윗 뒤집기-23배로 확장된 세계의 탑이 있는 구조물'은 블라인드 작업의 큰 전환을 보여주는 올해 신작이다. 제목 그대로 미국의 미니멀리즘 조각가 솔 르윗의 '세계의 탑이 있는 구조물' (1986)을 23배 확장한 블라인드 설치작품은 새로운 계열의 블라인드 작업을 예고한다.

12일부터 리움미술관 '코끼리를 쏘다...'展
대표작부터 신작까지 총 35점 엄선해 소개
"기관전은 탄탄한 작가가 되기 위한 필요악"

은 것을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 개념적이고 조각적인 작품이예요. 전시장이라는 공간이 권력적이고 상업적인데 그런 심리적, 문화적 가치와 사회성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년 전 망명한 미얀마인이 '창고 피스'를 위한 연설'을 맡았다면서 아이러니가 중점되는 이 작품이 전시 공간에서는 이방인 같은 존재라고 했다.

"거주하지만 원주민이 아닌, 있는 공간을 이질적으로 만들고 권리를 요구하면서 존재하는... 10년 전 양혜규의 초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작품 이후의 삶도 있죠. 시기에 걸맞게 탈바꿈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소개되는 게 기뻐요."

'신용양호자들'은 사회적 관계성의 미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작품은 지인들이 보내준 편지봉투를 주제로 한 콜라주 연작이다. 내용이 보이지 않게 보안무늬가 인쇄된 봉투를 한쪽은 칼로 재단하고 다른 쪽은 손으로 뜯어 정교한 구성으로 만든 작품이다. 리움 전시장 한쪽 벽면을 장식한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자춤-신용양호

블랙박스를 연극의 무대처럼 바꾼 '상자에 갇힌 발레' (2013/2015)는 독일 바우하우스의 무대연출가 오스카어 솔레머에게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인체 형상에 방울을 달고 움직이거나 매달려 있는 '소리나는 인물' 6점과 선풍기 날개 대신 방울을 넣은 '바람이 도는 케도-늦쇠 도금'으로 구성돼 있다.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2013년 소개됐고 지난해 독일 본에서 오스카어 솔레머 100주년 기획전으로 소개됐었다.

양혜규는 2000년대의 시대 담론을 문학적, 역사적으로 추상화해 시적인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구 모더니티의 역효과와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평준화의 모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왔던 작가는 이번 전시의 주요 모티프로 '코끼리'를 선택했다.

"전시 제목에 들어간 '象' 자는 코끼리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입니다. 코끼리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 코끼리 모양을 상상으로 그려 넣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여기에 사람 인(人) 자를 붙이면 이미지를 뜻하는 상(像) 자가 되는 것일까. 보는 것과 아는 것, 상상해야 되는 부분, 손실된 부분들을 생각하면 코끼리는 어쩌면 우리가 되살려야 할 고귀한 인격 혹은 인간의 존재론적 존엄성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심하게 배치된 것 같지만 관객들이 지닌 은밀한 생각과 감각을 깨워 주는 작품들은 양혜규의 깊은 성찰과 탐색에서 나온 결과물들임에 틀림없었다. 전시는 오는 5월 10일까지.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